

문영숙의 꼭 알아야할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32>

일본 러시아 손을 빌려 최재형을 제거하기 위해
연해주 군정총독인 스베친에게 거짓 날조문 전달했으나 실패
최재형 권업회 발기



문 영 숙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였고, 합병선언 다음날인 8월 30일 연해주에서는 13도창의회(十三道義軍)의 지도자 42명을 체포하였다. 러시아당국은 이 가운데 이범윤 등 7명을 이르쿠츠크로 추방하였다. 이들에게 부과된 죄목은 이들이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 군수를 살해할 모의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일제가 날조한 거짓 문서에 근거한 것이었다.

최재형은 1910년 12월, 이종호와 함께 연추에 국민회를 설립하고 회장에 취임하였고 자신의 주택을 국민회 본부 사무실로 제공하였다. 당국의 허가를 얻지 못해 비밀로 조직된 국민회의 목적은, 학교설립과 교육의 장려, 인재 등용, 국권회복 등이 목적이었다. 주요 간부는 채두성(蔡斗星), 황병길, 오주혁 등이었다.

1911년 초, 일제는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최재형을 러시아의 손을 빌려 처치하기로 했다. 일본은 첩보원들의 도움을 받아 최재형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는데, 최재형이 일본 정권과 비밀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날조하였다. 헤이룽강 연안 군관구 참모장은 최재형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연해주 군정총독인 스베친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참모부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노보키예프스크에 거주하는 그 지역의 가옥 소유자이자 안치해 마을의 도헌인 최는 굉장히 위험하고 수상한 사람으로서 일본 정부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조선의 천대받는 계층 출신으로서 결국 러시아 경내로 옮겨온 최는 그가 자기

조국에 거주할 때 받았던 모든 능욕에 대해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국가를 상대로 복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는 러일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도쿄에 가서 반 년쯤 거주하였고, 이때 최는 일본 정권과 비밀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여행에서 돌아온 최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조선 국민들을 동정하는 척 하면서 새로이 발생한 빨치산 운동의 선두에 서고자 노력하였고 곧 이에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빨치산들이 바로 최에 의하여 일본인들에게 넘겨지는 사토로 물고 갔으며 이제는 조선인들이 최를 다른 눈으로 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 박환교수의 시베리아 한인 민족운동의 대부에서 발췌-

위 글에서 보는 대로 최재형은 러일전쟁 후 일본에 있던 박영효의 초청으로 약 6개월간 일본에 머문 적이 있었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최재형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은 위 내용대로 연해주 지방 행정부에 최재형을 러시아에서 추방할 것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연해주 지방 행정부는 최재형을 추방하는데 반대하여 최재형을 러시아에 남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수리스크 철도국 경찰국장 세르바코브는 조선 애국자들의 추방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연해주 군정총독 스베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는 조선인 최가 아주 믿음직한 진실한 애국자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일본은 러시아 정권과 조선인들 앞에서 자기네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인물들에게 치욕을 주는 전술로 작년에 일본은 이러한 일들을 빛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최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러시아의 손을 빌려 자기들의 적을 박멸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적 중 하나가 바로 최인데 그는 자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빨치산 운동을 비밀리에 행함으로써 증거를 내보일 수 없게 하

였으므로 최는 일본인에게 손꼽히는 적입니다. 일본인들은 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수리스크 철도관리국 헌병경찰대장인 쉬체르코바는 연해주 군정군무사 스베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제의 간계를 폭로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최재형은 러시아의 의심할 바 없는 충성스러운 애국자라고 주장했다. 포시에트구역 경찰서장 역시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관리들은 물론 모든 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옹호했다.

최재형은 1주일 동안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추방은 면했지만 연추 도헌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일본은 일본첩자로 추방될 최재형을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 기선을 불라다보스토크에 대기시켜 놓았다고 한다.

1910년 일제의 한국병합으로 대동공보가 폐간된 이후에 한인들은 그 후속 신문의 발간을 위해 노력하였다. 최재형은 대양보 발간이 결정되자 사장직에 취임해서 이종호와 함께 신문발간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양보는 인쇄기가 분실되면서 지속적으로 발간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11년, 최재형은 러시아정부의 공식적 허가를 받아 한인의 실업과 교육을 장려할 목적으로 합법적 단체인 권업회를 발기하였다. 1911년 6월 1일, 57명의 대표가 참석한 권업회 발기회에서 최재형은 발기회장으로, 홍병도 장군이 부회장으로, 총무 김립, 서기 조창호, 재무 허태화 등이 간부로 선출되었다. 러시아당국의 공식인가를 받은 권업회 공식 창립대회는 1911년 12월 17일이었다. 창립대회에서 도총재(都總裁) 유인석(柳麟錫)에 이어 김학만, 이범윤과 함께 최재형은 총재로 선출되었다.

참고도서 : 박환 저 <시베리아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문영숙 저 <독립운동가 최재형>

김영희의 교육에세이



김영희
CTN/교육타임즈 객원기자

정해진 틀밖으로 나오라

로 수업 중에 교수에게 여러 질문을 해대서 송구스럽고, 그후 교수가 과제의 난이도를 대폭 높였다는 점이다. 예기치 않게 과 친구들에게 민폐를 끼친 꼴이 되었다. 친구들은 어려운 과제를 푸느라 켄경대며 틈만 나면 아이를 불러내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아들에 관한 여러 정황을 말하며 어머니는 용감히 새판 짜는 아들의 미래가 두려웠다. 먼저 그녀를 위로하며 정선주 작가의 ‘학력파괴자들’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얘기를 나눴다.

“학교를 바치고 나온다고 누구나 성공하는 게 아니죠. 평소 하고 싶었던 열망이나 꿈이 뚜렷한 아이들이 결국 성공해요. 자체분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최고의 자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고교 때 이미 컴퓨터에 두각을 나타냈다. 하버드 대학 수학과에 입학 후 중퇴하고 친구인 폴 앨런과 창업했듯 그 형태가 상당자의 아들과 거의 흡사했다. 혹시 아는가, 한국의 빌 게이츠가 탄생할 지 모를 일이다. 세계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학력 파괴 바람이 드세다. 학력이 아닌 실력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장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가진 회사로 평가받는 구글은 대학졸업장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몇 년이 흐른 후, 상당 했던 어머니가 점심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 27세 된 아들이 같은 회사 능력 있는 여직원과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기뻐했다. 그가 창업한 회사가 나날이 발전했다. 은행과 자산관리 관련 앱을 개발하는데 승승장구해 개발자만도 무려 300여 명에 이른단다. 지금은 모 대기업에서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수백여 원을 투자한 상태다.

사업도 성공하고 결혼도 성사되어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다른 아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어렵사리 선택한 아들이 남다른 삶의 전형을 만들어냈다. 그 길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가. 그 열수록 모험심과 탐구력이 빛을 발한다.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장본인이 아닐까.

“사실 노출초사했지요. 남들은 다 학교에 잘 다니는데 우리 아들만 엉뚱한 짓을 하고 나서나 싶어서 한날 한시 편

한 날이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영리한 아들은 대학 중퇴 후 부모도 모르게 자기만의 인생살이 준비를 차곡차곡 했다. 그는 공학도이면서도 인문학적 소양까지 높였다. 그의 궁극적 꿈이 영화평론가리나 짐작이 간다. 다양한 책을 어려서부터 접한 그는 지금도 독서광이다.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는 책들만도 산더미다.

이미 그는 MOOC를 통해 미국 스탠포드 대학 등 강의 수료증도 땀다. MOOC란 ‘온라인 공개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을 말한다. 수강 과목 성적이 거의 A+이었다. 그는 미래 인재 조건을 갖추며 스스로 크는 아이에 속했다. 무슨 연유일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사 이버데에 적을 두고 열렬히 공부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한다. 물론 타고난 유전자도 있을테지만 집안의 공부 분위기나 주변 환경 등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영어는 EBS에서 방영한 ‘잉글리쉬 카페’를 들으며 독학했다. 부모와 외출했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쟁쟁 들길 원해서 두른곤 했다. 초, 중등학교 시절에는 탐정 소설을 쓰고 대학 재학 중 스타트업에 발을 내딛었다. 그런 수많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책과 탐구 속에 담겨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컴퓨터 황제’로 통하는 빌 게이츠도 “내 아이들에게 당연히 컴퓨터를 사 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책을 사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컴퓨터보다 책이 어린 시절 꿈과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는 데 더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문가를 넘어선 초전문가 시대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의 중요성을 원시 부족에 비유하여 제시한 바 있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이 거대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강 상류에 거대한 댐이 지어지는 거예요. 원시 부족은 자식들에게 채로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 카누를 만드는 법, 농사짓는 법을 계속 가르쳤어요. 댐이 만들어지자 원시 부족과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해진 틀 밖에서 미래사회의 역할을 갖추든 현대판 원시 부족이 되지 않으리라.

현대 창업주 회장 일대기 (5)



리 채 윤
CTN/교육타임즈 논설 위원

기업가 정신이란 꿈이며 예술이며 과학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인간적인 과정이다. -그로브스 호리

할 수 있다는 정신

노만 V. 피일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매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남달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그 회사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만약 그의 동료들이 어떤 제안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소위 ‘진공청소법’이라는 것을 적용했다. 이 ‘진공청소법’이란 동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있는 먼지를 완전히 뿜아내는 방법이다. 즉, 그들의 마음에서 소극적인 요소를 완전히 뿜아내고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조용히 암시를 주어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자신과 용기를 채워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동료

들은 ‘그가 암시를 주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그것은 확신에 가득 찬 그의 태도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끈기와 각오, 강한 정신력, 자기 암시력으로 성공을 향해 자신을 내몰아 간다. 그들은 오히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경우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끈기가 도저히 안 되는 일에서조차도 손을 놓으려 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성공에 대한 목표는 그대로 두고 길만 바꾸면 된다. 사업가는 몇 가지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데 마음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 되는 특정한 수단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실현가능 하나 불가능 하나하는 문제는 시장과 행운에 맡긴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자신들이 성공할 것이라고는 꿈도 못 꾸었던 사람들로 가득하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끈기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왜냐하면 재주를 갖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천재 이야기는 흔하다 못해 거의 격언이 될 지경이다. 또한 이 세상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낙오자들이 무수히 많다. 결국 재주도 천재도 교육도 아닌, 오직 끈기와 각오만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밀어붙여라

는 슬로건이 인류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왔고 또 풀어갈 것이다. 비즈니스의 주요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s)으로는 성공하겠다는 정신력인 ‘할 수 있다’는 정신(Can Do It Spirit)’이 중요하다. 정주영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 또한 이러한 끈기와 각오이다. 정주영의 경우에는 이러한 ‘캔 두’정신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불확실성 하에서라도 확실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은 방법을 찾으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점을 마주치게 되면 그 장애를 돌파하려 하지 않고 비켜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비켜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부딪혔을 때마저도 비켜갈 공리만 하게 된다.

정주영은 ‘하면된다’는 자기 암시, ‘이미지 트레이닝(Image Training)’을 통해서 불도저처럼 무섭게 밀어붙임으로써 놀라운 업적을 남긴 기업가였다. 그는 스스로가 자신을 ‘불도저’로 생각하되 계산하고 예측하는 성능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머리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하고, 노력하면서 밀어붙였다.

자기 암시를 주는 습관을 갖는다

실천적 리더십

정주영은 1947년 현대를 창업해 중화 학산업을 비롯한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먼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했다. 또 기술의 국산화를 주장해 건설, 자동차, 중공업, 전자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고, 일찍이 민간주도형 시장경제체제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기업경영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경제 발전사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주영이 지난 반세기 넘게 펼쳐온 기업 활동의 성공요인은 한마디로 실천적 리더십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주영은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생활 철학, 창조성과 혁신성, 결단력과 리더십, 성실과 신용, 강인한 정신력과 높은 성취욕구 등 성공한 기업가의 자질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그 중에서 경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현대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주영의 신속·정확한 결단력과 강력한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업가의 능력이다. 정주영이야말로 바로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

자이다. 항상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있는 정주영은 주변 사람들이 매 사업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진출을 망설일 때, 과감히 승부수를 던져 일사불란한 리더십으로 전 임직원을 이끌었다.

정주영은 신속·정확한 결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현대의 모든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 국내 최초로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해 1976년 국내 최초로 순수 우리기술의 ‘포니’ 개발,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과 울산 미포만 백사장 사진 한 장으로 1973년 세계 최초로 조선소 건립과 유조선을 수주해 중화학공업의 기틀 마련, 1983년 현대전자 설립 이후 반도체, LNG선, 무궁해자동차 등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 1998년 소떼몰이 방북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으로 남북화해와 이해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그 빛을 발했다.

캔두 정신의 평가

그2001년 4월 26일, 정주영 회장이 별세 한 후 한 달만에 고인의 공과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 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마련한 이 자리에는 ‘아산

정주영 회장이 21세기에 남긴 유산’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송병락 교수가 ‘정주영 회장의 경제적 유산’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는데 그는 정주영의 경제 리더십을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캔두(Can-do) 정신’에 기반을 둔 한국적 경영방식이라 그것은 21세기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동체주의에 바탕을 둔 정 회장의 경영철학은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 철학이나 미국의 테일러주의에 못지않다. 정 회장은 기간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간산업의 해외종속을 막는 등 자주적인 산업발전 모형을 개발하는데 정진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정 회장은 한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세일즈맨이자 최고의 기업가’라고 평가했다. 정주영은 1982년 9월 사장단회의에서 기업가의 실천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되지 않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사자된 지식이요 사장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현시켜서 그 실천효과가 자기기업, 그리고 관련된 회사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실천하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